

87 Questions from 13 Books

• • • • •

구체적인 현실에서 작업의 동기를 얻지만, 그 특정성을 보편적인 인간 조건으로 치환하려 한 것이 내 작업의 한계였을까? ¹

관찰자의 시점, 구경꾼의 시점을 넘어서 사태의 모순과 부조리를 더 깊이 천착했어야 하는가? ¹

미사일과 탱크가 주인이 된 세상에서, 죽은 언어의 잔해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? ¹

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설 것인가? ¹

부조리한 사물로 부조리한 시대를 비웃고, 실패를 자초하는 퍼포먼스로 우리 사회의 실패를 비판하면 그것으로 충분한가? ¹

그것들이 실제 현실 속에서 충동을 일으키고 굳건한 믿음의 벽에 균열을 낼 만큼 강력한가? ¹

일관된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상충하는 여러 개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? ¹

이것은 옳은 선택인가? ¹

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? ²

무슨 말씀이시죠? ²

이유요? ²

저렇게 끈대스러운 발언을 지금 왜 해? ²

님, 혹시 즐라이랑 친해요? ²

3년을 5년을 10년을 그 이상을 버티지 못하게 되면? ²

스스로를 거짓되고 천박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, 대량생산품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,

다들 그렇게 진정성을 갈망하는데 어째서 세상은 점점 더 진정성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일까? ³

때로는 꿈이 너무도 선명해서 실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던가? ³

보거나 들어서 구분할 수 없다면,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? ³

아테네인들이 수년에 걸쳐 유지하고 보수한 배는 테세우스가 크레타로부터 타고 왔던 배와 같은 배일까? ³

어떤 것이 동일한 존재로 보존되고 존속한다고 전제하지 않으면, 그것이 변했다는 말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? ³

그보다는 50마일이 더 낮지 않을까? ³

남들은 모르는 자기만의 비법도 없는 사람이 무슨 비전을 갖춘 CEO란 말인가? ³

이게 현실이에요? ³

이 모든 것의 의미는 뭐란 말인가? ³

그렇다면 지금처럼 스크린을 기반으로 거의 완벽하게 네트워크화된 사회에서 인쇄물은 여전히 유효한가? ⁴

하지만 이것은 훌륭하고 전통 있는 대안적 서점이 해온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? ⁴

하지만 정말로 누가 인쇄된 페이지를 '살해'했는가? ⁴

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가져온 결과일까? ⁴

아니면 디지털 혁명은 단지 인쇄 매체가 품고 있는 기본적인 취약함을 폭로하는 것일까? ⁴

진짜 비틀스 맞아? ⁵

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린 건 아닐까? ⁵

“내다”버린 생수병은 어디로 가는가? ⁵

이렇게 말하면 첫인상이 참 좋겠다, 그렇지? ⁵

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오래된 추억의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지도 않는 향수를 어디에 쓴단 말인가? ⁵

소설을 펼쳤을 때 종이위의 글자와 이야기가 헛소리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면 소설이 무슨 소용인가? ⁵

기억을 잃은 채 자유로운 자와 기억을 간직한 채 구속된 자 중 누구의 처지가 더 딱한가? ⁵

우리는 그 화면, 이미지, 테이프 속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? ⁵

우리 가족, 친구, 고향을 이리도 다정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게 만드는 이 달콤한 감정을 억눌러야만 할까? ⁵

회귀를 통해 이득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? ⁵

단순히 더 행복해지려는 욕심으로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되찾아 올 수 있게 될 때,

이를 통해 가능해지는 착취는 어떤 형태인가? ⁵

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? ⁶

그렇다면 왜 나하고 결혼을 해요? ⁶

당신은 나의 삶이 무의미해지기를 바랍니다까? ⁶

그가 하다못해 후회하는 빛을 보이더라도 했던가요? ⁶

이미지와 우리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? ⁷

어떻게 이미지에 거주할 것인가? ⁷

우리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? ⁷

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하니? ⁷

불이 내던지는 것은 무엇인가? ⁷

What the cause of thunder? ⁷

무엇이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가? ⁷

네가 이 곡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벤자민 브리튼(Benjamin Britten)의 음악을 즐겨 듣고 있었지? ⁷

저작권은 도대체 어떤 집단을 보호하려는 걸까? ⁷

제발, 그 괜찮아, 라는 말 좀 그만할 수 없어요? ⁸

제발 그 똑같은 대사 말고 보다 신선하고 새로운 말 좀 할 수 없나요? ⁸

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일찍 자야 해요? ⁸

사랑 따윈 아무래도 좋고 장사하듯이, 사업하듯이 결혼도 하는 거야? ⁸

어디 그게 박사 공부한다는 사람이 입을 옷이니? ⁸

아악! 뽀글래라구? ⁸

영화를 꼭 봐야하나요? ⁸

조직의 보스 노릇,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? ⁸

전망적 시선의 지배를 주장하기 위해 [일하던] 자신의 팔을 멈출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? ⁹

누가 빈 단어들을 붙잡아 그것들을 채우는 권리를 가지는가? ⁹

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주 웃었을까? ¹⁰

아니 이게 끝이란 말이야? ¹⁰

그럼 처음 걸음마하는 아기도 자기가 섭취하는 총 칼로리의 70퍼센트를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데 쓰겠네? ¹⁰

그러니까, 언제나 내 꿈을 짓밟아오기만 한 인생아, 마지막으로 한판만 재미있게 잘 풀려줄래? ¹⁰

여행하는 것보다는 여행을 꿈꾸는 게 더 좋잖아? ¹⁰

어머 농담이시겠죠? ¹⁰

그래서 전시란 무엇인가? ¹¹

아니면 제도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아직 알아야 할 게 더 있다고 느끼나요? ¹¹

오늘날 박물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¹¹

What if he changes his mind? ¹²

Think you might be interested in coming out to watch me play sometime? ¹²

Oh my God, you answered the phone? ¹²

How did your family escape the town? ¹²

Following the white light? ¹²

I'm not a real fan? ¹²

Is he on disability? ¹²

Have you ever lost someone for good? ¹²

-Do you want to be buried in a cemetery, cremated and scattered in the ocean, composted beneath an apple tree? ¹²

What prompted you in non-linearity? ¹³

What do you think is the role of mistakes in all of that? ¹³

How did I manage to do it? ¹³

Is there anyone who wants to have his or her name on the library? ¹³

Why shouldn't we forget 3:30? ¹³

- ¹ 『안규철의 질문들』 안규철 — 워크룸 프레스
- ² 『광장』 윤이형, 김혜진, 이장욱, 김초엽, 박솔피, 이상우, 김사과 — 워크룸 프레스
- ³ 『진정성이라는 거짓말』 앤드류 포터 — 마티
- ⁴ 『포스트디지털 프린트 1994년 이후 출판의 변화』 알레산드로 루도비코 — 미디어버스
- ⁵ 『포에버리즘』 그래프턴 태너 — 워크룸 프레스
- ⁶ 『이방인』 알베르 카뮈 — 민음사
- ⁷ 『말 아님 노래』 김성환 — 현실문화
- ⁸ 『모순』 양귀자 — 도서출판 쓰다
- ⁹ 『해방된 관객』 자크 랑시에르 — 현실문화
- ¹⁰ 『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』 최승자 — 난다
- ¹¹ 『뉴 큐레이터』 플러 왓슨 — 안그라픽스
- ¹² 『Learning to love you more』 Miranda July and Harrell Fletcher — Prestel
- ¹³ 『Again, Again It All Comes Back to Me in Brief Glimpses』 — MMCA Korea

: 엮기 — 이가영
: Indexing Library
: 07.SEP, 14.SEP. 2024